

당정, 선별적 대출규제 완화…'LTV 10%' 우대 대상자 확대

이데일리

정부와 여당,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를 일부 풀기로. 여권의 재보궐선거 참패 후 규제 완화 요구했으나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사 반영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투기지역에서 LTV 40%를 적용,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50%. 무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LTV가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신용대출 다시 증가, '퇴직금 담보대출' 받아 투자…'코인 광풍'에 2030 세대 '빚투' 급증

한국경제

2030 세대가 '코인 광풍'에 휩쓸리면서 최근 대형은행에서 자금이 빠지는 '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은행에선 수신잔액이 빠진 반면, 케이뱅크는 지난해말 3.75조원에서 지난달 말 8.72조원으로 5조원 가량 폭증.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전달 말 대비 5725억원 증가

금감원, 징계앞둔 신한銀에 "라임 최대 80% 배상"

매일경제

20일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 450여 명에게 손실액의 40~80%를 지급할 전망

'라임 사태' 이종필, 또 다른 펀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연합뉴스

라임 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또 다른 펀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메리츠화재·KB손보, 마이데이터 사업 출사표 던진다

머니S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의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을 포함해 총 4개의 대형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발을 내딛는 것

보험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권 획득으로 자산관리서비스 등에서 다른 금융권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도 무기가 돼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원금채 투자 2배로 커진 보험사들,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는

연합인포맥스

올해 1분기 동안에 보험사가 사들인 스트립 원금채 규모가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와 기금은 만기 20년을 이상 초장기물 원금채를 모두 1.69억원 매입

지난 3월 금리가 급변동하면서, 뒤늦게 매수에 급하게 뛰어든 기관은 원금채로 듀레이션 확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담대 금리, 은행보다 싸요… 최저금리 간판 내건 보험사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5대 은행 최저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은행 대출을 조이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로운 보험사들이 우대금리 적용 등 일부 공격적인 금리정책을 통해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

토스증권, 신규 주식 계좌 200만개 돌파…2030 비중 70%

미디어SR

토스증권은 신규 주식 계좌수가 지난 16일 200만개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새벽 계좌 100만개를 돌파한지 단 1틀만

지난주 12일 오픈한 '주식1주 선물 받기' 이벤트 큰 성공에 기인. 특히 본격적으로 이벤트가 입소문을 탄 마지막 사흘간(14일~16일) 계좌를 개설한 고객만 152만명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